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7월(제6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장학생 여러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 선발 오이타현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대학별 대표 학생과
오쓰카(大塚) 기획진흥부장(왼쪽에서 세 번째).

지난 6월 9일, 오이타 현청에서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선발식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별 대표 학생만 초청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장학생들도 선발식을 볼 수 있도록 Zoom(비디오 회의 플랫폼)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되었습니다.

오이타현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오이타현 내 소재 대학에 다니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 내 5곳의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80명에게 연간 36만 엔(한화 약 37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유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이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에 오이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연 3회 개최 예정인 ‘오이타 특강 및 스터디 투어(기업 방문 및 매력 발굴 투어)’에 참가하여 오이타의 역사, 문화, 산업 등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는
중국 출신 김한기씨
(오이타 대학 재학)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고민보다 상담 GO!

외국인 상담 센터 오픈! 우사시 宇佐市



지난 6월 1일, 우사시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산산관(さんさん館)’에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기초자치단체(市町村)가 주도하여 개설한 첫 번째 상담 센터이자, 현 내에서는 두 번째로 오픈한 상담 센터입니다. 벳푸시, 오이타시, 나카쓰시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우사시는 지난 2019년에 ‘우사시 다문화 공생 및 국제 교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담 부서(다문화 공생·교류계)를 신설하여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은 작년부터는 기능 실습생 고용 및 소득 문제, 귀국 희망자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주민의 생활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상담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센터는 (전)지역 부흥 협력 대원(地域おこし協力隊員)이 설립한 ‘원(One) 바운드 합동회사’가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주 4일(화, 수, 금 오후 3시~7시/일 오전 10시~오후 2시)입니다. 제공 언어는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이며 사전 예약 시 중국어, 한국어 대응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메일 및 메신저(Facebook) 상담도 가능하니 우사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사시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

- 주소 : 大分県宇佐市大字四日市391-10

さんさん館 2F(〒879-0471)

- 연락처 : 0978-25-4440 / usmis001@gmail.com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7월(제6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여름특집> 아이들과 다함께 시원한 아쿠아리움으로!

우미타마고 수족관 오이타시 大分市

온천 여행, 효도 여행지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벳푸·오이타. 하지만 이곳에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여행 관광지가 많이 있다. 그중 오늘 소개할 ‘오이타 마린팰리스 수족관 우미타마고(大分マリンパレス水族館うみたまご, 이하 우미타마고 수족관)은 벳푸와 오이타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바로 뒤에는 야생 원숭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을 등지고 있어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지로는 안성맞춤이다. 또한, 여름 방학 시즌에는 바다 생물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실시된다.

우미타마고 수족관은 지난 1964년 개관하여 2004년 지금의 모습으로 리뉴얼한 후 현재 약 500종, 15,000마리의 생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트립 어드바이저(여행 플랫폼 웹사이트)가 발표한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동물원&수족관 랭킹’ 수족관 부문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 실시된 ‘황금 연휴 관광 동향 조사(ゴールデンウィーク観光動向調査)’에서는 오이타현 내 관광시설 입장객 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현 내외에서 인기 있는 수족관이다. 특히 아이 동반 가족 여행에 적합한 관광지로 이미 한국에는 소문이 나 있는 만큼, 오늘은 직접 우미타마고 수족관에 다녀오고 느낀 관람 포인트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선을 이끄는 다양한 물고기들



외부에 있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고 내부로 들어와 관람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고향의 물가(ふるさとの水辺)’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는 오이타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보이는 높이 8m, 수량 1,250t 규모의 ‘대회유수조(大回遊水槽)’에서는 오이타 해역에 서식하는 대형 상어나 가오리 등 90종 1,500여 마리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심 200m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과 해파리, 일본인에게 인기가 많은 가든일, 열대 지역 아마존에 서식하는 열대어와 피라루쿠, 한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다사자, 바다물범, 바다코끼리까지 정말 다양한 바다 생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깨끗한 수질과 투명한 유리 덕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눈을 반짝이는 아이 옆에서 부모님도 흥미롭다는 듯 함께 수조를 한참이나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족관임을 느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7월(제6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2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지는 다채로운 쇼



우미타마 퍼포먼스
(うみたまパフォーマンス)

우미타마고 수족관의 간판스타인 바다코끼리가 다양한 재주를 선보인다. 평일은 공개 훈련이라 그때 그때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바다코끼리의 휘파람을 불고 손으로 키스를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쇼가 끝나면 바다코끼리의 몸을 살짝 만져볼 특별한 기회도 있다. (약 15분)

- 시간 : 매일 10시/13시/15시(※평일은 훈련 시연)
- 장소 : 2층 옥외 퍼포먼스 구역(パフォーマンスエリア)



산호 대수조에서 수중 산책
(サンゴ大水槽での水中散歩)

바다의 꽃 산호는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산호가 가득한 수조에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 수중 카메라로 열대어와 산호를 비춰준다. 이에 맞추어 수조 밖에 있는 스태프가 산호에 관한 설명을 들려주는데, 우미타마고 수족관에 있는 산호는 아주 강한 인공조명을 설치하여 일본 내 최초로 산호 번식에 성공했다고 한다. (약 10분)

- 시간 : 매일 11시 30분
- 장소 : 1층 산호 대수조(サンゴ大水槽)



돌고래 퍼포먼스
(イルカのパフォーマンス)

우미타마고 수족관의 돌고래 쇼는 아주 가까이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어 쇼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명당을 잡으려 몰려드는데, 가까운 만큼 물이 꽤나 튀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점프, 링 돌리기, 캐치볼, 빠른 속도로 헤엄치기 등 다양한 재주를 보여주는 돌고래에게 아이들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화이팅'을 외쳐보자. (약 10분)

- 시간 : 매일 11시/14시
- 장소 : 2층 옥외 돌고래 수영장(イルカプール)



물고기 프로덕션
(おさかなプロダクション)

바다코끼리나 돌고래가 훈련을 받고 연습하여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쇼와 달리, 물고기들의 특성을 활용한 작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물대포를 쏘아 아크릴판에 붙은 먹이를 떨어뜨리는 물총고기나 전기뱀장어의 방전 실험, 파이프에 쓰인 글자를 읽고 입구로 들어가는 돌돔까지. 성공을 위해 약간의 트릭(?)이 있을지도 모르며, 물고기들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끝까지 지켜보시길!

- 시간 : 매일 12시
- 장소 : 1층 실험 홀(実験ホール)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7월(제6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3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체험



이곳은 우미타마고 수족관에 있는 작은 해변, ‘아소비치(あそびーち)’이다. ‘동물, 예술과 놀자’라는 테마로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유유히 헤엄치는 돌고래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며 물놀이를 할 수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동물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 다가오는 동물은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 운영 시간 : 9시 30분~16시



더불어 여름 방학 시즌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과 함께 직접 바다 생물에게 먹이를 주며 추억을 만들어보자.

- 기간 : 7월 22일~8월 31일 / 9시~18시

※ 8월 13일~15일은 9시~19시 운영

- 체험 내용 : 바다코끼리, 고래, 수달 먹이 주기 등

- 요금 : 각 500엔~1000엔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umitamago.jp/2021/07/21/2021summer-event-infomation/>)



이렇게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우미타마고 수족관이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열심히 뛰어논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수족관 2층에 위치한 ‘우미타마 카페 Bee Honey’에서는 감쪽한 바다코끼리 카레/하이라이스를 판매하고 있다. ‘우미타마 퍼포먼스(바다코끼리 쇼)’에 등장했던 바다코끼리 모양인데다, 하이라이스는 버터 풍미의 데미그라스 소스를 베이스로 만들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라 아이들을 만족시키기 충분할 듯하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면 유모차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우미타마고 수족관은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 촉진 법률(ハートビル法)’에 따라 지어져 모두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실내 전시를 하는 수족관이라 날씨 및 계절과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점 역시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눈이 즐겁고 즐길 거리가 다양하므로, 오이타 가족 여행을 할 때는 꼭 코스에 추가해 보자.

- 오이타 마린팰리스 수족관 우미타마고
(大分マリンパレス水族館うみたまご)

주소 : 大分市大字神崎字ウト 3078-22(〒870-0802)

전화번호 : 097-534-1010(일본어 대응)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료 : 고등학생~성인 2,300엔

초등학생~중학생 1,150엔

만 4세 이상 75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7월(제61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6화

<특집> 노지는 어찌다
일본어를 배우게됐나 ①



일본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꼭 받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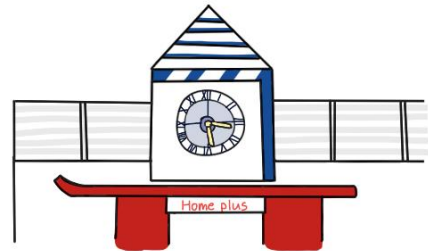
당시 11살의 노지는
외국인만 보이면 일단 말부터 걸고



원어민 수업시간을 손꼽아 기다릴정도로
영어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길에



누군가의 목소리에 잠시 멈춰서게 되는데 ...



3
관광지에서
외국인만 보이면
달려가 말걸던
시절의 노지^^